

영암군,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총력

확진자 발생 마을 주민 전수검사·주변도로 통제 김영록 도지사 방문해 방역대책 청취·노고 격려



영암군은 지난 20일 3명(학산면 2, 타 지역 1)의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1월 20일 기준, 올해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검사 및 통제조소 설치에 이어 방역 및 점검에 힘쓰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확진자 2명 발생에 따라 학산면 해당 마을 주민들의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통제조소(6개소)를 설치하여 임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전원에 대한 전

수검사와 더불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적 폐쇄 조치(-1.29)하였다.

1월 20일 현재의 확진자 동선에 따라 학산면사무소 전 직원에 대한 검사 역시 실시 중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현황 및 주요 동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 19 확진자의 지속 발생에 따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암군을 방문하여 확산대비 상황을 점검하

였다.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현장 방문은 김영록 도지사,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소수의 주요 관계자들만 참석하여 방역대책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암군은 이번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후속 방역 및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사찰과 교회 등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 관내 258개 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계속해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행정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97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적발 목적보다는 방역지침 준수 협조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계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다.

앞서 군은 선제적 검사를 추진하여 이 달 11일~13일까지 3일간 대별국가산단에 임시선별진료소 6개소를 설치하여 외국인 3,100여명을 포함한 총 4,9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및 점검도 강화된다.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의 동반 입장 및 예약이 금지된다.

유흥 5종, 유흥업 및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노래방 등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지속된다.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이·미용업, 목욕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숙박업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된다.

더불어,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 임시휴장을 실시한다.

휴장조치는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장육과 노점상 상인 유입통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전통시장 내 상설 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내 방역조치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 19 관내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군민들께서는 타지역 방문자와 접촉 및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면, 주저말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 낭만콜, 빠르고 편리한 호출로 시민들로부터 '호응'

운영 두달간 4만6천여건호출...앱·전화로 이용 가능

목포 브랜드콜 택시인 '목포 낭만콜'이 편리한 서비스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각각 콜센터를 운영해 이종배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대기업이 콜택시 사업에 진출해 택시 시장에 발생한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 '목포 낭만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총 1억2천5백만원으로 시가 1억원을 지원해 앱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9개 법인택시에서 2천5백만원을 자부담해 브랜드콜 홍보 이미지 제작 및 택시 외부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목

포 낭만콜'은 목격지만 입력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목포지역 전용 모바일 앱으로 실거리 배차시스템으로 배차가 신속하게 이뤄져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모바일 앱과는 다르게 전화(☎ 1688-8255)로도 호출이 가능해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턱이 낮은 점도 장점이다.

'목포 낭만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첫 달인 지난해 11월에는 1만 2,628건이 접수됐으며 12월에는 대폭 늘어 3만3,919건이 접수됐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산림조합,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발생

함평군산림조합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00여 조합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 임직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2020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흑자전환 경영을 이르게 되어 조합원에게 출자배당 및 이용 고배당을 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도 조합운영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우수조합으로 종합업적부문 동상 및 SI상조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광우 조합장은 “앞으로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산림분야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자연이 선물한 한 폭의 수목화”

1004섬 신안, 갯벌에 핀 새하얀 눈 뒤덮여 진풍경



전국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내렸다. 신안군도 지난 대설·한

파(1.6~1.10)로 누적 적설량 평균 32.2cm, 최저기는 영하 12.8℃를 기록한 가운데 신안군 갯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비경이 펼쳐졌다.

갯벌은 염분과 밀물, 썰물로 인해 눈이 쌓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고 특히, 신안군과 같은 섬지역은 평균기온이 10℃가 넘는 달이 1년 중 8개월이상인 아열대기후에서는 더욱이 보기 힘든 풍경이다.

그러나, 영하 10℃를 넘어가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신안군의 갯벌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신안군의 넓은 갯벌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갯벌의 작은 수로들과 어우러져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다양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목화를 연상케 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농가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추진

유통지원·판로확대·전략품목 육성 지원

무안군은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금년에도 다양한 농업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으로 지역법인에 사업비 19억원(자부담 포함)을 투입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형태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2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400만원씩 온라인 판촉과 광고비 지원을 실시하며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양파즙 가공업체에 양파즙 포장재와 제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포장재와 농산

물저온저장고 지원, 온라인 쇼핑몰 홍보 판촉, 농특산물 TV홍소핑 방송 판매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 유통, 서비스업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한 농업 선도조직 양성 및 고구마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을 추진한다.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공익수당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